

일 4월부터 3개현에서 돼지콜레라 백신 본 접종 중단

일본 당국은 4월1일부터 돗토리현과 오카야마현, 가가와현 등 3개현에 대해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일본이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에 한 발자국 더 접근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96년부터 돼지콜레라 박멸 정책을 강도높게 전개해오고 있는데, 2000년 10월에 전국적인 백신접종을 중단한후, 2001년 4월에 청정화 선포를 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 93년 이래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었으며, 멧돼지를 포함한 조사에서도 야외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백신접종 중단을 하더라도 돼지콜레라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1년간 돼지콜레라의 환축 발생이 없는 지역, 백신접종이 철저하게 시행되는 지역, 야외 바이러스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을 백신접종 중지 지역 기준으로 정했다.

이번 이들 3개 현의 백신접종 중지 조치는 다른 현에도 영향을 미쳐 내년 4월 늦어도 10월까지 전적으로 백신접종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본의 백신접종 중단에 맞춰 돼지콜레라를 박멸해야 하는 시급한 숙제를 안게 되었다.

8월부터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일본은 그동안 권장사항이던 농축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관계법을 개정, 금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일본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국산 돼지고기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본에 수출되는 돼지고기는 대부분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돼지콜레라 박멸이라는 숙제와 함께, 일본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돼지고기가 맛이 좋고, 위생적이며,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을 주시시켜야 하는 또하나의 숙제를 안게 되었다.

일본은 돼지고기의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과 관련하여 최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9개 수출업체의 수출단가를 제출해줄 것을 관세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양돈농가 세금 7천3백만달러 환급 국 추진

미국 농무성(USDA)은 98년 돼지가격 하락으로 양돈농가들이 입은 운영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약 7천3백만달러의 세금을 환불해줄 계획이다.

미국 농무성은 현재 진행중인 양돈산업의 위기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으로 98년도에 돼지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순운영 손실(Net Operating Loss)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양돈농가들은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30일 이내로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양돈농가들은 약 7천3백만달러(약 8백 9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 GSM-102자금 10억달러 배정

미 농무성은 3월 29일 1999 회계연도에 한국에 GSM-102 자금 10억불을 배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이 금년중 한국에 지원할 GSM-102자금 10억불중 사료곡물에는 3억2천만불이 배정되었고, 쇠고기에 6천만불, 돼지고기에 2천 5백만불이 배정되었다. 기타 원면, 밀, 콩, 원예, 펄프, 원피 등의 품목에도 배정되었다.

GSM-102 자금의 만기일은 금년 9월 30일까지이며, 수출선적은 금년 11월30일까지 완료하면 유효하다. 이 자금의 지원조건은 최고 2년간 사용할 수 있고, 금리는 런던은행간 금리(리보)+0.2%이며, 6개월마다 4차례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이 자금은 수출입은행 등 국내 1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99 세계양돈박람회 디모인에서 개최

'99 세계양돈박람회(World Pork Expo)가 오는 6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미국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개최된다

세계양돈박람회는 미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양돈 전문 박람회로 양돈관련 시설 및 기자재, 사료, 동물약품, 종돈, 분뇨처리시설 등이 전시되며,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 종

돈 경매, 양돈기술 상담 등의 부대행사도 열린다.

미 상원, 한국산 돼지고기 불공정무역 척결 촉구

미국 상원이 한국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불공정 무역 관행 척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한국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 3월25일 승인한 내년도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상원은 결의안에서 지난 93년에 만들어진 쇠고기 양해록의 이행을 한국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미무역대표부(USTR)와 농무부에는 한국정부와의 협상지속과 돼지고기 보조금의 국제협정 위배 여부, 한국의 보조금이 미국산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 92년이후 한국의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이 10배이상 늘어난 것이 한국정부의 축산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과로 보고 있으며, 이런 보조금지급이 미국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대일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금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조해 주던 규격돈 생산 장려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대만 돼지두수 규제역 발생전보다 39%만 감소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농림부) 조사에 따르면, 98년 11월말 현재 대만의 돼지 사육두수는 6백53만9천두로 6개월 전보다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대만에 규제역이 발생하기 전인 96년 11월 말과 비교해서는 38.9%나 감소한 수치이다.

대만은 규제역 발생 이후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중단되면서 사육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데, 최근에는 감소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아직도 구제 역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돼지고기 수입물량 증가, 환경문제 대두로 향후 사육두수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말 돼지 200만두중 100만두 살처분

말레이시아

- "니파" 바이러스로 주민 111명 사망

병명이 밝혀지지 않은 돼지 전염병으로 말레이시아에서 111명의 주민이 사망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에서 사육중인 200만두의 돼지중 약 절반인 100만두를 살처분중이다.

말레이시아의 남서부 네그리 쉴빌란주와 페락주에서는 작년 10월 이후 증상이 일본뇌염과 비슷한 전염병이 발생, 111명의 주민이 사망했다. 이 질병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만 당국은 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최초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의 이름을 따 "니파"로 명명했다.

이 질병의 증상은 두통과 현기증, 고열, 4지 마비, 의식불명, 사망에 이르고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주로 양돈장 또는 양돈장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감염되는데, 사망자중 상당수가 양돈장 또는 양돈장 인근에 사는 사람, 돼지고기 취급업자로 밝혀졌다. 이 전염병은 감염된 돼지 또는 생체 분비물과 직접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 당국은 말레이시아로 부터의 모든 돼지와 돼지고기의 수입을 중단하는 한편,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덴마크 세계 3위 돈육 패커로 부상

덴마크 최대 도축회사인 데니쉬크라운과 베

스트유스크(후데인)이 지난 3월 합병함으로써 데니쉬크라운이 유럽에서 가장 큰 돼지고기 패커가 되었으며, 미국의 IBP와 스미스필드에 이어 세계 3위의 패커로 부상했다.

데니쉬크라운은 합병후 덴마크의 연간 총 돼지 도축두수중 76%인 1천6백만두의 도축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슈퍼마켓을 통한 돼지고기 판매 비중도 50%를 점하게 되었다.

한편 EU위원회는 데니쉬크라운과 베스트유스크의 합병을 승인하는 한편, 돼지 도축업 독점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사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데니쉬크라운은 새 회장에 베스트유스크의 전 회장이었던 N.미켈슨씨를 선임하고, 최고경영책임자에는 데니쉬크라운의 MD였던 K.요하네슨씨를 선임했다.

E 금년 하반기 이후 돼지값 회복 전망

작년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EU의 돼지가격이 금년 하반기 이후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돼지고기 가격은 작년 11월까지 최저가를 기록했으나, 금년 상반기에도 생산 증가가 예상되는데다가 작년 9월부터 시행되어 온 민간 비축분의 방출도 이루어져서 당분간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EU의 최대 수출선인 러시아 수출용에 한정된 수출 보조금을 대폭 인상함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재개되고 있다. 또한 식량원조물자로서 러시아에 10만톤의 돼지고기를 민간 재고분과 시장 구입분에서 수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돼지가격의 폭락으로 많은 EU가맹국 양돈농가들이 번식용 모돈수를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이후 EU의 돼지고기 공급이 둔화되어 가격이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